



대 뉴 욕 지 구 한 인 교 회 협 의 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Tel: 718-279-1414, Fax: 718-279-5838

문서번호: 043-002

시행일자: 2016. 11. 8

수 신: 회원교회 대표

참 조: 교회 내 유관기관

제 목: 교협 제43회기 임원구성과 운영방향 발표의 건

지난 총회에서 선출된 교협 제43회기 회장단은 새 회기를 운영할 임원진을 구성하고 운영방향을 오늘 언론을 통해서 교계에 알렸으며, 동시에 이를 모든 회원 교회에도 알립니다. 오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협도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변화되고 무엇인가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내려놔야 하거나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와 교계가 새롭게 거듭나는 해가 되도록 회원 교회 여러 분들의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첨부: 언론 브리핑 자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홍석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3회기
임원구성과 운영방향에 관한 언론 브리핑 순서

일시: 2016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교협 사무실

사회: 총무 임병남 목사

1. 환영인사: 회장 김홍석 목사
2. 임원발표/소개 : 회장 김홍석 목사
3. 운영방향: 회장 김홍석 목사
4. 중점사업과 중요일정: 총무 임병남 목사
5. 간단한 질의/응답
6. 마침 기도

* 사진촬영

* 중식(교제)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3회기 임원구성과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 1. 임원구성

- ① 회장: 김홍석 목사
- ② 부회장(목사): 이만호 목사
- ③ 부회장(평신도): 이상호 집사
- ④ 총무: 임병남 목사
- ⑤ 서기: 최현준 목사
- ⑥ 부서기: 최요셉 목사
- ⑦ 회계: 이광모 장로
- ⑧ 부회계: 장현숙 목사
- ⑨ 수석협동총무: 양민석 목사

■ 2. 운영방향

- ① 표어: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해
- ② 성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1975년 시작된 뉴욕교협은 이민 초장기 뉴욕 한인이민 사회의 단결과 신앙의 결집을 가져 오는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십여 년 사이 교협은 위상이 크게 떨어졌고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교계와 이민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변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은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당시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중세 교회들의 그릇된 점들을 시정하고 개혁하여 본래적 기독교의 모습을 되찾자는 기독교 갱신 내지는 회복운동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뜻 깊은 해에 임기를 맞게 된 교협 제43회기는 교협의 과거 그릇된 관행이나 잘 못을 바로잡고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여 본 교협이 교계와 이민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중심 단체가 되도록 금년을 개혁적 신앙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의 해”로 삼고자 한다.

* 종교개혁 발상지 탐방 (계획)

■ 3. 중점사업

1. 운영 방향의 전환

- (1) 일부 교회와 임신행위원을 위한 운영에서 탈피
- (2) 전체 회원교회의 참여와 연합을 위한 운영
- (3) 선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역비전 확대

2. 제도의 개선

- (1) 선거제도의 개선
- (2) 재정 관리와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
- (3) 헌법과 세칙들의 비합리적 규정과 오류 수정 보완

3. 의식의 변화

- (1) 목회자의 윤리의식
- (2) 협회원으로서의 연대의식
- (3) 복음적 신앙의식

1. 운영 방향의 전환

(1) 일부 교회와 임신행위원을 위한 운영에서 탈피

최근 뉴욕 교협을 보면 교협이 뉴욕교계와 회원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과 실행위원들, 그리고 회원교회의 대표가 아닌 몇몇 분들을 위한 교협처럼 보여져왔다. 총회는 임원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새임원이 구성되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은 임신행원의 명단에만 신경을 쓴다.

이제 교협은 달라져야 한다. 몇몇 목회자들의 독무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착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회원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힘과 격려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협은 회원교회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목회자들에게 운영의 방향이 맞추어져서도 안 된다. 즉, 회원 교회의 대표가 아닌 분들이나 실재하지 않는 페이퍼 교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총대권이 주어져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2) 전체 회원교회의 참여와 연합을 위한 운영

연합기구의 생명은 연합이다. 뉴욕교협은 300여개 이상의 한인교회들의 연합기구이다. 연합기구인 교협이 연합에 실패하면 끝이다. 임신행위원장을 맡은 몇몇 목회자 교회들만의 활동만

가지고는 교협이 교계를 대표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 현재 교협의 가장 큰 문제는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의 출발은 참여에 있다. 현재 교협의 가장 큰 문제는 회원교회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1년에 딱 한 번 교회 대표가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인 교회들도 있고, 300여개 회원 교회들 중 반이 넘는 150여개 교회는 총회조차도 참석하지 않는다. 물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여는 지역 모임의 활성화에 있다. 요즘 교회들마다 셸이니, 목장이니, 가정교회니 하며 소그룹에 관심을 갖는 것도 따지고 보면 참여와 관계가 있다.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서 몇 백명이 되면 전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어렵다. 소그룹 형태의 모임은 참여와 교제를 위한 중요한 틀이 된다. 300여개의 회원교회를 가진 뉴욕교협도 참여를 위해서는 소그룹 형태의 지역모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대뉴욕지구를 3개의 광역지구와 14개의 단위지역(15~40개 교회)으로 구분하고 광역지구 대표와 단위 지역장 및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총무와 운영위원을 세운다.

*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지역구분 (계획)
(대뉴욕지구 = 3개 광역지구 = 14개 단위지역)

제1지구 서부지구

- 1지역 (맨하탄-브롱스) 12 교회
- 2지역 (스태튼아일랜드-브루클린) 18 교회
- 3지역 (뉴욕 북부) 19 교회
- 4지역 (우드사이드) 19 교회
- 5지역 (엘머스트) 19 교회

제2지구 중부지구

- 6지역 (남플러싱) 37 교회
- 7지역 (북플러싱) 39 교회
- 8지역 (동플러싱) 35 교회
- 9지역 (칼리지포인트) 13 교회

제3지구 동부지구

- 10지역 (남베이사이드) 15 교회
- 11지역 (북베이사이드) 25 교회
- 12지역 (리틀넥) 15 교회
- 13지역 (서부 롱아일랜드) 26 교회
- 14지역 (동부 롱아일랜드) 15 교회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① 지역별 정기모임 (매월)
- ② 지역 연합집회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 연합예배/행사)
- ③ 지역대항 연합체육대회 (메모리얼 체육대회를 지구별 혹은 지역별 대항 대회로)
- ④ 지역대항 각종 경연대회
- ⑤ 할렐루야대회 지구별 분산 개최 (연구)
- ⑥ 우수 모범지역 수상
- ⑦ 기타 참여와 연합을 위한 행사 계획

이와 같이 지역모임 중심의 교협 운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역 모임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교협은 교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교계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연합기구가 될 것이다.

(3) 선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역비전 확대

교협은 회원교회들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한인 지역사회와 다른 소수민족들과 미국 사회, 더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비전도 필요하다. 개교회가 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300여 교회가 힘을 합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아웃리치 (Out Reach)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행사계획을 세우고 회원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제도의 개선

(1) 선거제도의 개선

뉴욕 교협은 해마다 선거몸살을 앓는다. 이것은 금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입후보 등록하기도 전서부터 시끄럽더니 선거가 끝나고 났음에도 여전히 시끄럽다. 선거관리세칙까지도 여러 번 뜯어고쳤음에도 소용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선거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입후보자들이나 선거를 하는 회원교회 대표들의 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선거제도의 문제일지 모른다. 즉, 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부회장을 뽑는 선거가 돼 버렸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회장을 뽑는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협운영에 대한 정책, 비전 등을 보고 뽑아야 한다. 그러나 부회장은 어디까지나 회장을 보좌할 뿐, 본회를 대표하거나 모든 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회장이 아니다. 오히려 부회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왔다. 함부로 나서다간 회장으로 당선되지 못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회장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부회장의 직임에 적합한 자임을 보여주는 유일한 한마디 말은 “회장을 잘 보좌하겠

습니다”라는 말이 전부이다. 부회장은 교협 운영의 비전이나 정책 혹은 포부를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뉴욕교협 부회장은 정책이나 운영계획을 가지고 뽑을 수 없게 되고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뽑게 된다. 교협을 이끌어 갈 비전이나 능력은 실종이 되고 말았기에 당선되려면 개인적 관계를 엮어가야만 한다. 그러니 선거를 앞두고 편이 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전이나 능력이 아닌 편 가르기에 의해 부회장으로 당선 되고 그런 사람이 1년 후에 회장이 되는 상황에서 교협은 연합이나 화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선거제도를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2) 재정 관리와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

뉴욕 교협은 300여개 이상의 회원교회를 가지고 있고 1년 예산도 40만불 가까이 된다. 돈과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을 때에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늘 불만과 잡음이 생긴다. 교협에서 생겨나는 가장 큰 갈등은 앞서 언급한 선거와 더불어 재정과 관련된 것이다. 선거제도도 개선해야 하지만, 재정에 관한 것도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필요하다.

교협은 3명의 감사를 총회에서 뽑는다. 문제는 세부적인 감사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감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감사가 지나치게 월권을 할 수도 있고 정말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간과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정관리와 회계감사에 대한 세부규정을 이번 회기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다.

(3) 헌법과 세칙들의 비합리적 규정과 오류 수정 보완

뉴욕교협은 현재 헌법(정관), 선거관리세칙, 공로자포상위원회세칙, 그리고 사무국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정,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문구, 중복되거나 애매모호한 표현,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는 비문, 헌법과 세칙이 서로 상치되는 조항 등등이 한 둘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고자 만든 교협의 규정들이 교협 안에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시키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번 회기에서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 놓게 될 것이다.

3. 의식의 변화

(1) 목회자의 윤리의식

목회자들 가운데는 “차라리 평신도로 그냥 남아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지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교협의 회장, 부회장이 되기 위해 돈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 또 회장, 부회장이 무슨 큰 벼슬이나 출세로 생각하여 당선을 위해서라면 물 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또 어떤 목회자는 돈 몇 푼에 목회자로서의 양심마저 저버리는 사람들

이 있다. 뉴욕 교계의 대부분 목회자들은 건전하게 목회하고 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먼저 목회자의 양심이 회복되어야 한다. 양심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양심은 옳고 그름을 통찰 이해하고, 선악을 통찰하고 이해하여 인정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정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범죄 하면 양심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였다고 양심이 죽거나, 없어지거나, 잃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에 의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약화되고 둔화되고, 심지어는 양심의 감각이 마비가 되기도 한다.

양심이 회복돼야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바르게 행동하고 덕을 세운다. 교계의 목회자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매표니 매수니 하며 싸우는 것이 없어지려면 결국은 양심이 회복되고 목회자로서의 윤리의식이 변화되어야만 한다.

(2) 협회원으로서의 연대의식

사회 구성원 상호간 또는 구성원과 사회간의 상호의존을 지탱하는 의식, 또는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귀속의식을 연대의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동사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이나 감정을 공동체의식이라고 한다.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연대감이나 공동체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교협은 교회들의 연합기구이다. 그러므로 교협이 즐거움을 함께 하거나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아픔과 고통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으려면 회원교회들의 연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협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협의 갱신을 위해서는 연대의식의 고취도 한 몫을 할 것이다.

(3) 복음적 신앙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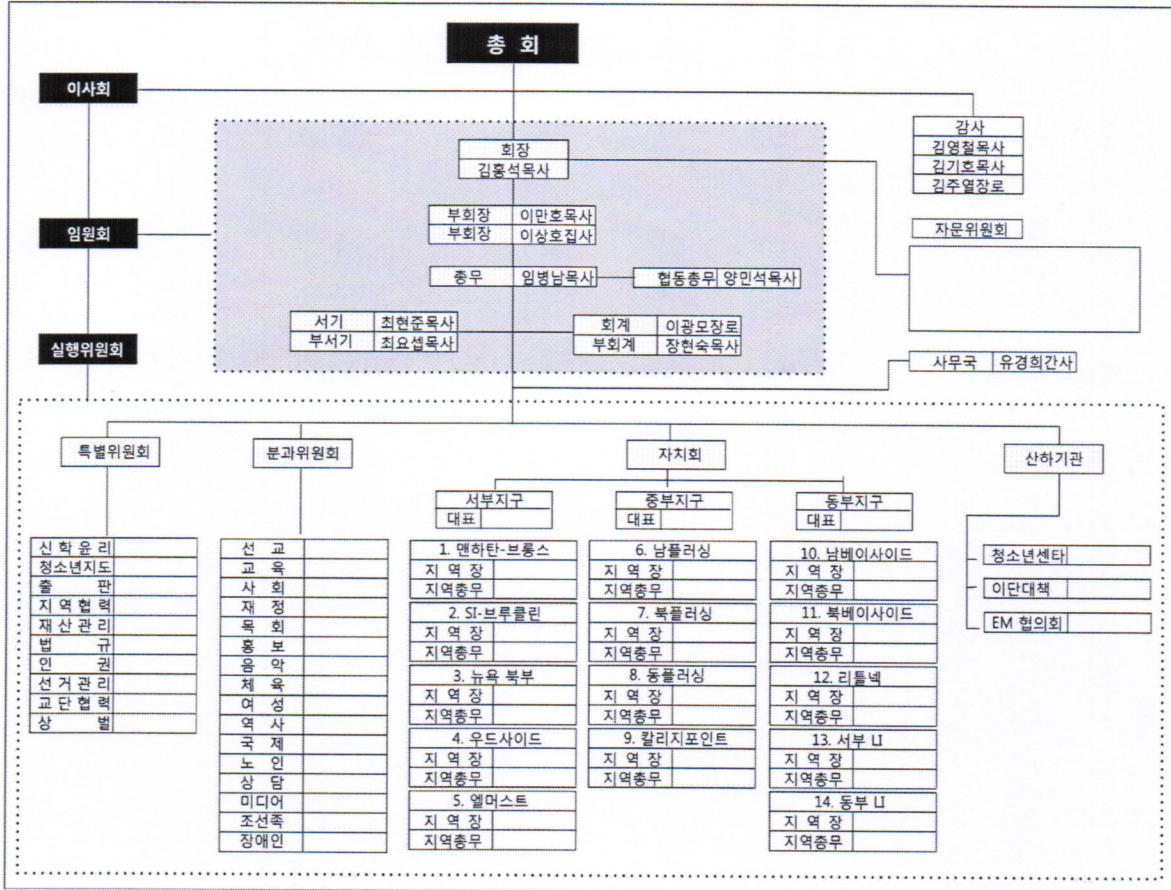
교협은 초교파 단체이다. 교파에 따라서 교리와 정치제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타 교파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뉴욕 교협의 헌법(정관)은 전통적 복음주의 교회들의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정통주의 복음과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그을 수 있어야 한다. 복음주의 진리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회원교회가 있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금번 회기는 회원교회와 회원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 혹은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게 될 것이다.

■ 4. 행사일정

1) 이/취임식 11월 29일(화) 오전 11시 (계획)

[조직발표]



2) 실행위원회 (12월 중)

- 43회기 사업계획 발표

- 43회기 예산안 심의